



품질은 회사의 명예고 안전은 회사의 생명입니다.

poscon 권영길 안전보건팀장

포스콘의 권영길 팀장은 대구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 1990년 2월 이곳의 전력 전자분야 엔지니어로 입사하였다. 10년간 포스코와 해외 철강프로젝트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경영지원부문 내 전략사업파트에서 미래사업 발굴에 역량을 쏟다가 지금은 안전보건 팀장으로 그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처음 입사할 당시 광양제철소 3기를 건설 중이었는데, 평범한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에 관한 주입식 교육과 지시로 일관하는 관리감독에 대해 잠시 반감을 갖기도 했던 때가 있었다. 더운 여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한 분진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작업환경은 열악한데, 안전모와 보안경, 분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차츰 관리적 마인드가 생기고,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나 감독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안전보건팀장이 된 지금, 관리나 감독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지원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 만큼 지시보다는 먼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이곳 포스콘은 지난 1998년부터 지금껏 11여 년간 무재해를 달성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경영자나 근로자의 관심이 높다. 처음 안전보건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동안 일궈온 무재해 기록을 지켜나가는 것과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 더욱이 약간은 느슨해진 안전감수성과 철강 산업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점차 대외 신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사업장만 해도 100개소가 넘으며 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도 많아 현장의 안전관리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경험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역경을 헤쳐 나갈 생각이다.

“설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설비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비라 해도 에러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인다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안전 또한 의식이 확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된 시스템이나 방호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어분야 엔지니어로서 에러를 유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의 전공이라 그러지 안전에 대한 생각 역시, 안전의식을 강조하는데 있다. 이러한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새해 안전보건선언문을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서명하도록 하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이용해 안전의식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8년 6월 이러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과 안전보건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산업재해유공자포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권영길 팀장은 모두 선대 안전관리자분들이 기초를 튼튼히 해 왔듯이 자신의 위치에서 산업재해가 사업장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좀 더 발전된 선진안전기법 도입과 벤치마킹은 물론 포스콘 만의 노하우로 종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을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매진할 예정이다. 공들여 쌓은 탑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게 마련이다. 그의 노력으로 더 견고하고 높은 무재해탑이 포스콘에 쌓여지길 기대해 본다. ☺